

현대 한국인들이 서구화되어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는 한국인의 마음과 생활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권석만, 1997; 김시천, 2016; 심경섭, 이누미야 요시유키, 윤상연, 서신화, 장양, 한성열, 2012; 조공호, 2007;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공호, 이수원, 1999; 한덕웅, 2003). 따라서, 유교문화에서 언급되는 개념들을 현대 심리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한국인에게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석틀과 치료적 접근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안도연, 이훈진, 2016).

유교의 개념 가운데 중용(中庸)은 대중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의 오프닝 멘트에 쓰이고(배철수의 음악캠프, 2016. 9. 5), 기업 강의나 정치에 대한 기사와 평론에 자주 등장한다. 또한 영화에서 주제를 전달하는 주요 도구(역린, 2014)로 쓰이는 등 유학 용어 중 가장 일상성과 친근성이 높은 개념이다(최상진 등, 1999). 중용의 ‘중(中)’이란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도록 맑고 고요하게 하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상태로 감정과 행위를 표현하며, 객관적 상황과 이상적 조화를 달성하는 것¹⁾이며(장승구, 윤행식, 김석수, 정해창, 박흥기, 2004), ‘용(庸)’은 반복을 통한 지속적인 쓰임(用)으로(이수원, 1997), 매일 매일의 일상적 행위이자 평상적 행위다²⁾. 즉, 중용은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역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근원적으로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김용옥, 2011a),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원리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중용에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전에 전체 상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강조하며, 갈등적인 대인관계에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행동을 선택하도록 권장한다(Yang & Chun, 미발표; Yao, Yang, Dong & Wang, 2010에서 재인용).

즉, 중용은 삶속에서 역동적인 조화와 균형을 지속적으로 이루려는 태도로, 이를 인지(知), 정서(情), 동기(意)로 구성된 심리학적 개념으로 정리하면, 인지적 유연성과 정서적 균형 및 상황에 적절한 정서 표현을 포함하며,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안도연, 이훈진, 201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으로 양극단을 고려하여 가운데를 쓴다(執其兩端 用其中³⁾)는 의미에서 중용은 대상의 대립적 측면을 모두 검토하고, 통일되고 조화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변증법적 태도이며(김용옥, 2011a, 2011b; 장승구 등, 2004), 사고 구조 및 표상 차원의 변화를 통한 태도의 질적 발달로 볼 수 있다(이수원, 1997). 또한 중용은 주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 중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정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용은 적응적 정서 조절(emotion regulation)일 수 있는데, 이는 미발지중(未發之中)으로서의 중(中)과 이것이 절에 맞게 나타나는 중절(中節) 혹은 중화(中和)의 의

1) 『中庸』 1장,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2) 『中庸章句』 中者不偏不倚無過不及之名 庸平常也 子程子曰 不偏之謂中不易之謂庸 中者千下之正道 庸者天下之定理

3) 『中庸』 6장,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為舜乎

미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동기적으로 볼 때는 중용의 용(庸)의 의미인 일상성과 항상성의 개념으로 보아, 자신을 스스로 살펴 경계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신독(慎獨) 개념이 내포된, 보상이 없이도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내적 동기로 볼 수 있다(Ryan & Deci, 2000). 내적 동기는 강화나 보상이 없이도 행동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자율성 혹은 자기 결정적 행동의 원형이다(한소영, 2010). Ryan과 Deci(2000)는 특히 내적 동기를 발현하고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 심리적 욕구 중 유능감과 자율성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안도연과 이훈진(2016)에 의해 위와 같이 심리학적 구성개념으로 정리된 중용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중용 척도에 포함되어야 할 예비 문항을 구성하고 적절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의 박사과정 이상에서 중용을 연구한 전문가 6명에게 문항 평가 및 문항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그것을 바탕으로 선정된 문항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중용 척도를 완성하였다. 연구 2에서는 완성된 중용 척도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알아보는 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진행되었다.

연구 1. 중용 척도 개발

연구 1은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예비

문항을 구성하고 이 문항들이 중용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 내용의 안면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에게 평정을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정된 문항들을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문항을 선택하여 척도를 완성하였다.

1단계 : 중용 척도의 예비 문항 선정

예비 문항은 『中庸』과 관련 역주서, 해설서 및 관련된 서적과 논문들(금장태, 2003; 김용욱, 2011a; 김용욱, 2011b; 성백효, 2013; 이기동, 2010)에서 나타난 중용의 의미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용이 어떻게 인식되고, 나타나고 있는지 수집한 내용(안도연, 이훈진, 2016)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유학적 개념과 학문적인 의미의 중용 뿐 아니라 현재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용의 의미를 포함하여,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접근인 이론적 접근과 아래로부터 위로의 접근인 경험적 접근을 모두 사용하여, 현실과 거리가 있는 추상적 내용 뿐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중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학적 개념에서 이론적으로 도출한 중용의 심리학적 측면에는 극단적이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판단에 해당되는 변증법적 태도와 인지적 유연성이 포함되었다. 또한, 표현되기 전 안정적 상태와 표현된 후 조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정서 안정 및 적응적 정서 조절과 중용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 및 내적 동기가 포함되었다.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나타난 중용의 심리학적 측면은 이론적으로 도출한 인지적 유연성이나 정서적 안정 및 극단적이지 않은 행동과

대체로 일관되었다(안도연, 이훈진, 2016). 이중 일반인들의 개념과 경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인지적 측면의 중용이었다. 즉, 중용과 관련된 경험에서 새로운 대안을 생각하거나 상황 판단 시 변증법적이고 중립적인 사고를 하며 상황에 적절하고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보고가 많아 문항 구성에 있어서도 인지적 측면을 가장 많이 포함하였다. 그 외에 적응적 정서 조절과 동기 측면을 포함하여 총 99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선행 연구에서 수집된 중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 경험들을 단순한 문장 형식으로 수정하여 마련하였다. 그 후 이론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중용에 가까운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이론적으로 중용을 설명하는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여 첨가하였다. 예비 문항 중 인지적 측면에는 ‘의견에 치우침이 없다.’,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 ‘상황 파악을 잘 한다.’ 등이 있고, 정서적 측면에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내 마음과 상황에 적절하게 주의를 두면서 살핀다.’ 등이 마지막으로 동기적 측면에는 ‘나는 살면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편이다.’ 등이 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중용을 연구한 박사과정 이상의 6인(박사 3명, 박사후료 1명, 박사과정 2명)에게 각 문항이 얼마나 중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고 문항 구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에 따라 평균 4점 이상인 문항들을 선정했다. 평균값은 기준점 이상이지만 6명중 한명이라도 1점의 극단값을 준 경우는 문항을 다시 검토하였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과 중용의 심리학

적 개념에 대해 연구 모임을 통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심리학 박사과정 이상의 2인과의 논의를 종합하여 재검토 문항들의 포함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총 37문항을 예비 문항으로 채택했다.

2단계: 중용 척도의 요인 구조 확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비 문항으로 채택된 중용 37문항의 요인구조를 분석하고 최종 문항을 선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참여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부생 352명이었다. 심리학과 연구 참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 문건 및 연구 설명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밝힌 참여자만 포함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연구 점수를 제공하였다.

참여자 중 남자는 198명(56%), 여자는 154명(44%)이었으며 연령은 만18 ~ 28세였다(평균 연령: 20.29세, $SD = 1.93$).

측정도구

중용 척도-37(Zhongyong-37: ZY-37)

본 연구 1의 1단계에서 중용적 태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선택된 37개 문항에 대해 “평소에 얼마나 자신과 일치하는지”를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 사이의 점수로

평정하도록 한 7점 리커트 형식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분석

CEFA 3.04와 IBM SPSS Statistics 2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37개 예비 문항들의 왜도를 살펴본 결과 -0.98에서 -0.01사이로 이질성이 크지 않았다. 문항의 척도가 7점이고 왜도의 차이가 크지 않기에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장승민, 2015). 분석 결과 총점-문항 간 상관이 너무 낮거나, 문항 제거 시 내적 일관성 계수가 상승하는 문항은 없었다. 문항 간 상관에서 다른 문항들과 상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30이하 혹은 .80이상)를 분석한 결과 문항 간 상관이 .80이상인 경우는 없었고, .30이하로 낮은 경우가 10회 이상인 문항들이 14개로 나타났다. 이 중 연구 1의 1단계 전문가 평정에서 5점 미만의 점수를 나타낸 경우인 8개 문항을 제외하였다(나는 한 가지에 경직되지 않는다. 등). 더불어 연구자들이 속한 연구 모임에서 6개월 이상 본 연구에 대해 토의하였던 심리학과 박사과정 이상의 3인에게 다시 한 번 문항 검토를 요청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문항 또는 중용의 심리학적 의미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3개 문항을 전문가 평정과 교차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제외하였다(나는 객관적이다 등). 그 결과 37

문항에서 총 11문항을 제외한 26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일차적으로 SPSS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요인 추출 및 회전 방식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과 사각회전방식(direct quartimin)을 적용하였다.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eigenvalues)가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해 본 결과 4개 요인이 선택되었다(요인별 고유치: 10.04, 1.53, 1.48, 1.22). 스크리 도표를 통해 고유치 감소 정도를 고려했을 때 3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차적으로 CEF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요인으로 지정한 뒤 분석하였다. 문항 선별을 위해 요인 적재값이 .30이 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과 동시에 높은 부하량을 보이며 두 요인 적재값 차이가 .10이하인 5개 문항을 제거하였다(나는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여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간다 등).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연구자들의 토론에 따라 중용의 개념 상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나 탈락하게 되는 문항인 ‘나는 살면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편이다.’는 탈락시키지 않아 총 22문항이 남았다.

또한,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러 번 표집을 무선적으로 구분한 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반복적으로 서로 다른 요인들에 속하는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나는 사리 분별을 잘 한다.’ 등의 3개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9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요인 별 문항과 요인 부하량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 적합성 지수는 .92로 상당히 높았고, 3요인 모형의 총 설명량은 52.9%였다. 3요인 모형의 RMSEA 값은 .068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표 1. 중용 척도의 문항 및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부하량

| 문 항 | 요인1 조화/조절 | 요인2 균형/안정 | 요인3 공감/포용 |
|---|--------------|--------------|--------------|
| 8. 나는 상황 파악을 잘 한다. | .39 | -.03 | .22 |
| 10. 나는 때와 장소에 맞게 감정표현을 한다. | .54 | .11 | .00 |
| 11. 나는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를 조절 할 수 있다. | .52 | .14 | .08 |
| 12. 나는 살면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편이다. | .42 | .13 | .15 |
| 13. 나는 하고 싶은 것들을 서로 조화롭게 이루려고 하는 편이다. (예: 놀기와 일하기 등) | .43 | .17 | .07 |
| 14. 나는 내 감정과 행동이 적절한지 살핀다. | .52 | .04 | .13 |
| 15. 나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도리를 지킨다. | .51 | .12 | .10 |
| 18. 내 행동은 상황에 맞게 시의적절하다. | .59 | .26 | .01 |
| 1. 나는 공정한 편이다. | .14 | .51 | .11 |
| 2. 나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 .09 | .70 | .01 |
| 9. 나는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 -.01 | .81 | -.02 |
| 17. 나는 편견과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편이다. | .11 | .53 | .10 |
| 19. 나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 .01 | .47 | .17 |
| 3.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 | .06 | -.10 | .76 |
| 4. 나는 마음이 열려있다. | -.11 | .19 | .71 |
| 5. 나는 내 마음속과 주변 상황을 모두 적절히 살핀다. | .26 | .15 | .38 |
| 6. 나는 상대방을 배려한다. | .28 | -.03 | .47 |
| 7. 나는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한다. | -.03 | .19 | .63 |
| 16. 나는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편이다. | .10 | .26 | .36 |

주.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값을 진하게 표시함.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나는 상황파악을 잘 한다.’, ‘나는 때와 장소에 맞게 감정표현을 한다.’, ‘나는 내 감정과 행동이 적절한지 살핀다.’, ‘나는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를 조절할 수 있다.’ 등이 속하였다. 요인 1의 문항들은 시중(時中)으로 주로 자신과 주변을 살피는 것과 그것들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화/조절’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5문항으로 ‘나는

공정하다’, ‘나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나는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요인 2의 문항들은 주로 극단적이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不偏不倚)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균형/안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에는 6문항이 속하였다. ‘나는 마음이 열려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 ‘나는 다양한 관점에서

표 2. 중용 척도 요인 간 상관

| | 요인 1 조화/조절 | 요인 2 균형/안정 | 요인 3 공감/포용 |
|------|---------------|---------------|---------------|
| 요인 1 | 1 | | |
| 요인 2 | .52 | 1 | |
| 요인 3 | .53 | .51 | 1 |

본다'와 같이 타인 및 타자에 대한 포용을 의미하는 문항들이 있어 이를 '공감/포용'으로 명명하였다.

척도의 전체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내적 일관성 계수는 요인 1이 .83, 요인 2가 .82 그리고 요인 3이 .83이었다. 요인 간 상관계수는 .51 ~ .53으로 나타났다.

연구 2. 중용 척도 타당화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19개 문항의 중용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연구 2를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2-1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용 척도와 관련 척도들을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수렴 타당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중용적 태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 2-2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중용 척도와 중용적 사고 척도를 실시하여 공인타당도를 분석하였다.

2-1. 확인적 요인분석 및 수렴 타당도 분석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중용척도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

하였고, 연구 1에서 도출된 3요인 구조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중용의 심리학적 개념으로 고려한 인지, 정서 및 동기의 측면에서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인지적 유연성 척도, 개정된 이분법 사고 지표, 정서지능-특질 상위 기분 척도, 정서조절 곤란 척도,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을 둔 기본적 심리적 욕구 척도를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포함하였다. 이론적 배경에 따라 중용척도는 인지적 유연성 척도, 정서지능을 나타내는 특질 상위 기분 척도, 기본적 심리적 욕구 척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며 개정된 이분법 사고 지표, 정서조절 곤란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중용적 태도가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올바른 행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는 어느 정도 정적 상관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참여자는 총 368명으로 한국리서치(311명) 및 온라인 홍보(57명)를 통해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 모집 문건을 본 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기프티콘 및 리서치 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받았다. 전체 참여자 중 남자는 174명(47%), 여자는 194명(53%)이었으며 연령은 만 19~69세였다(평균연령: 43.79세, $SD = 10.24$).

그 중 검사-재검사를 위해 일반 사이트에서

모집한 57명을 대상으로 2주일 간격으로 중용 척도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재검사까지 완료한 참여자는 57명 중 36명이었다.

측정도구

중용 척도(Zhongyong Questionnaire: ZQ)

중용적 태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본 연구 1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택된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다. 연구 2에서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 및 동기에 대한 측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용적 태도(나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나요?)와 중용 실천 노력도(일상 생활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나요?)를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요인 구조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다(장승민, 2015).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중용적 태도 측면이 .90, 실천 노력도가 .93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유연성 척도(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CFI)

Dennis와 Vander Wal(2010)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검사로, 총 20문항의 7점 척도다. 본 연구에서는 허심양(2011)이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했는데, 국내 타당화 과정에서 10번 문항이 제외되어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적용하였다. 내적 일관성 계수는 허심양(2011)의 연구에서, .86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개정된 이분법 사고 지표(Dichotomous

Thinking Index-30 Revised: DTI-30)

황성훈(2007)이 개발한 30문항 척도로 양극

단 사고를 취하는 경향인 이분법적 사고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5점 리커트 형식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내적 일관성 계수는 .92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도 .92로 나타났다.

정서지능-특질 상위 기본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Salovey et al., 1995)

이수정과 이훈구(1997)에 의해 타당화되었으며,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다.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 및 감정의 복구 등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30개 문항, 5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2였다.

정서조절 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

Gratz와 Roemer(2004)가 포괄적으로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로 조용래(2007)에 의해 한국판으로 타당화 된 척도를 사용했다. 원판은 총 36문항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원판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3이다. 한국판의 전체 척도 내적 일관성 계수는 .92로, 이는 한국 타당화 당시 요인 분석에서 문항 17번이 탈락하여 총 35개 문항에 대한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기본적 심리적 욕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Scale: BPNS)

Ryan과 Deci(2000)가 자기 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심리적 기본 욕구들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21문항, 7점 리커트 척도다. Deci와 Ryan(2000)에 따르면 인간은 지속적인

심리적 성장, 통합감 및 안녕감에 핵심적인 기본 심리적 욕구가 있는데, 이는 삶에 필수적 요소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직장 및 학교에서의 생활, 수행 성취, 만족과 관련되며 자기조절이 필요한 섭식이나 운동과도 관련되어 있음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Deci & Vansteenkiste, 2004; Ryan, 2009; Ryan, Williams, Patric, & Deci,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명희(2008)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와 이은하(2011)가 재번역한 척도를 비교하여 적절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Self-Deceptive Positive Scale: BIDR-SDPS)

Paulhus(1988)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를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하고 타당화 한 척도(정보라, 2005)를 사용하였다. 전체 중 자기기만적 고양을 나타내는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직성을 보여 주려는 성향으로 암묵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응답하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5로 나타났다.

분석

IBM SPSS Statistics 24와 AMOS 21 Program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척도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 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탐색한 결과 세 요인 간 상관관계가 모두 .5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바, 1요인 모형과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결정된 3요인 모형을 비교하여 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표 3). CMIN/DF는 3보다 적어야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Kline, 2011), 1요인 모형은 3.0을 넘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GFI, TLI, CFI는 .90~.95이상이므로 1에 가까울수록,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로 작을수록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김계수, 2007; 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이 지표들에서 모두 3요인 모형이 1요인 모형에 비해 더 적합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3요인 모형의 경우도 TLI와

표 3. 중용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모형 간 적합도 비교

| 모형 | chi-square | 자유도 | CMIN/DF | GFI | TLI | CFI | RMSEA |
|-----------|------------|-----|---------|------|------|------|-------|
| 1요인 모형 | 390.112 | 119 | 3.278 | .890 | .832 | .853 | .079 |
| 3요인 모형 | 390.454 | 149 | 2.620 | .900 | .870 | .887 | .066 |
| 3요인 수정 모형 | 332.453 | 148 | 2.246 | .914 | .900 | .914 | .058 |

CFI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한계가 있었다.

모형 수정을 위해 먼저 다중 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살펴보았으나, 모든 문항들이 .20 이상을 보여 제외할 문항은 없었다(Hooper, Coughlan, & Mullen, 2008). 다음으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이에 균형/안정 요인에 포함된 문항 1번(나는 공정한 편이다)과 문항 2번(나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의 측정 오차 간 공분산을 가정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들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였다(표 3).

중용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참여자 57명(남: 14명, 여: 43명) 중 36명이 2주후 실시한 중용 척도 검사-재검사 설문에 참가했다. 이에 36명의 응답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 한 결과 .78로 적합한 수준이었다. 요인 1의 신뢰도는 .72, 요인 2의 신뢰도는 .70, 요인 3의 신뢰도는 .75로 적합하였다.

한편, 같은 문항에 대해 실천 노력도를 측정 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결과는 .56으로 나타나 측정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르는 중용적 태도의 차이

성별, 연령 및 결혼 상태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중용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본 뒤(표 4), 중용적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집단의 중용 척도 평균은 66.20, 표준편차는 8.87이었다. 중용 척

도 중 조화/조절 요인의 평균은 28.20($SD = 4.24$), 균형/안정의 평균은 16.67($SD = 2.96$), 공감/포용의 평균은 21.33($SD = 2.96$)이었다. 중용의 실천 노력을 측정 한 결과 평균은 73.31($SD = 9.17$)로 같은 문항으로 중용적 태도를 측정 한 결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에서와 같이 중용적 태도 성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r(368) = .24, p < .001$. 연령 효과를 통제하고도 종교의 유무와, $F(1, 365) = 10.36, p < .001$, 결혼 상태에 따라서 중용적 태도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F(2, 364) = 3.61, p = .028$. 그러나, 성별, 학력 수준, 가족 구성원 수 및 연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중용적 태도의 유의미하지 않았다.

중용 척도의 수렴타당도

그 다음으로 중용적 태도 및 중용 실천 노력도와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표 5에 제시되었듯이, 중용적 태도의 경우 인지적 측면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정적 상관을 이분법적 사고와는 상관 계수는 크지 않으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정서 지능과 정적 상관을 정서조절 곤란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율성과 유능감을 포함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하위 요인 별로 살펴보면 자율성과 .42, 유능감과 .40의 상관을 보였다. 방어적 측면을 측정하지만 긍정적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과도 .41의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중용 척도 하위 요인들과 관련변인들 간의 차별적 상관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중용 실천 노력도도 인지적 측면에서 인지

표 4.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집단 별 중용 척도 평균 및 표준편차 (N = 368)

| 특성 | 구분 | 인원수(명) | 비율(%) | 중용 척도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 성별 | 남 | 174 | 47.3 | 65.28 | 8.90 |
| | 여 | 194 | 52.7 | 67.02 | 8.79 |
| 연령 | 20대 이하 | 14 | 3.8 | 63.50 | 8.63 |
| | 30대 | 121 | 32.9 | 63.99 | 8.71 |
| | 40대 | 123 | 33.4 | 65.81 | 9.11 |
| | 50대 | 81 | 22.0 | 69.15 | 8.33 |
| | 60대이상 | 29 | 7.9 | 70.10 | 6.76 |
| 학력 | 중학교 졸업 이하 | 3 | 0.8 | 66.67 | 14.01 |
| | 고등학교 졸업 | 60 | 16.3 | 65.80 | 9.19 |
| | 대학교 졸업 | 221 | 60.1 | 65.75 | 8.84 |
| | 대학원 이상 | 84 | 22.8 | 67.63 | 8.56 |
| 종교 | 종교 유 | 227 | 61.7 | 67.48 | 8.76 |
| | 종교 무 | 141 | 38.3 | 64.13 | 8.69 |
| 결혼 상태 | 미혼 | 80 | 21.7 | 62.46 | 8.77 |
| | 결혼 | 279 | 75.8 | 67.16 | 8.68 |
| | 기타 | 9 | 2.4 | 69.44 | 6.93 |
| 가족 구성원 수 | 1명 | 9 | 2.4 | 64.56 | 9.36 |
| | 2명 ~ 4명 | 275 | 74.7 | 66.25 | 9.02 |
| | 5명이상 | 84 | 22.8 | 66.18 | 8.40 |
| 연평균 가구소득 | 2천만원 미만 | 32 | 8.7 | 64.31 | 9.24 |
| | 2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106 | 28.8 | 65.74 | 7.98 |
| | 4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121 | 32.9 | 66.98 | 9.29 |
| | 6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 74 | 20.1 | 65.73 | 9.46 |
| | 9천만원 이상 | 35 | 9.5 | 67.54 | 8.36 |

표 5. 중용 척도와 연령 및 관련 변인 간 상관 (N = 368)

| | 연령 | 중용 척도 | 조화/조절 | 균형/안정 | 공감/포용 | 중용실천노력 |
|--------|-------|-------|-------|-------|-------|--------|
| 중용 척도 | .24** | 1 | | | | |
| 조화/조절 | .19** | .91** | 1 | | | |
| 균형/안정 | .26** | .84** | .63** | 1 | | |
| 공감/포용 | .20** | .85** | .66** | .62** | 1 | |
| 중용실천노력 | .18** | .58** | .52** | .46** | .55** | 1 |

표 5. 중용 척도와 연령 및 관련 변인 간 상관 (N = 368)(계속)

| | 인지적 유연성 | 이분법적 사고 | 정서지능 | 정서조절 곤란 | 기본 심리적 욕구 | 사회적 바람직성 |
|--------|------------|------------|-------|------------|--------------|-------------|
| 중용 척도 | .57** | -.20** | .41** | -.43** | .46** | .41** |
| 조화/조절 | .51** | -.14** | .39** | -.35** | .43** | .37** |
| 균형/안정 | .47** | -.22** | .29** | -.40** | .34** | .38** |
| 공감/포용 | .50** | -.18** | .36** | -.39** | .42** | .32** |
| 중용실천노력 | .49** | -.16** | .41** | -.27** | .43** | .25** |

주. ** $p < .01$

적 유연성과 정적 상관을 이분법적 사고와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계수는 크지 않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 지능과는 정적 상관을 정서조절 곤란과는 중용적 태도와는 달리 계수는 크지 않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율성과 유능감을 포함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와도 마찬가지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바람직 성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계수는 크지 않은 .25의 상관을 나타냈다.

2-2. 공인타당도 분석

중용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에 吳佳輝과 林以正에 의해 개발된 중용적 사고 척도(中庸思維量表, Zhong-yong Thinking Style Scale)를 실시하였다. 중용적 사고 척도는 중용의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용 척도 중 인지적 측면과 더 높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두 측정치가 정적 상관을 보이거나 상관 계수는 공인타당도로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수준보다는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참여자는 총 364명으로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부생이었다. 심리학과 연구 참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 문건 및 연구 설명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밝힌 참여자만 포함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연구 점수를 제공하였다.

전체 참여자 중 남자는 191명(52.5%), 여자는 173명(47.5%)이었으며 연령은 만18 ~ 34세였다(평균연령: 20.17세, $SD = 2.04$).

측정도구

중용 척도(Zhongyong Questionnaire: ZQ)

연구 2-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했다.

중용적 사고 척도(中庸思維量表, Zhong-yong Thinking Style Scale)

吳佳輝과 林以正(2005)가 중용의 인지적 측

면을 중심으로 개발한 7점 리커트 형식의 자기보고식 척도로 1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다방면적 사고(多元思考), 통합성(整合性), 화목성(和諧性)의 3요인으로 구성되며, 다방면적 사고란 각기 다른 관점들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 통합성은 생각이나 의견의 통합, 화목성은 조화로우미다. 한국어 번역을 위해 대만과 한국에서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한국어와 중국어 이중언어 사용자(bilingual) 2명에게 의뢰하였다. 중국어는 중국 본토와 대만에서 사용하는 언어 간 다소 다른 측면이 있어 대만 거주자의 번역본을 주로 사용하였다. 한국어로 번역이 된 후 연구자들이 토론을 거쳐 수정하였고 이후 심리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2인에게 검토한 뒤 사용하였다.

분석

IBM SPSS Statistics 24 Program을 사용하여 척도 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결 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용 척도와 중용적 사고 척도를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가 비교적 적합하게 나타났다, .46, $p < .001$. 중용 척도와 중용적 사고척도의 각 요인별 상관도 표 6에 함께 제시하였다.

논 의

심리학 분야에서 동양적 사상을 서양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불교에 비해 유교 연구는 미비하다(김문준, 하창순, 2013). 한국인에게 유교는 삶의 기본 태도나 형식 등에서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한국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 분석들을 제공하거나 심리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교를 현대 심리적 방법론으로 연구하는 것은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

표 6. 중용 척도와 중용적 사고척도 간 상관 (N = 364)

| | 1 | 1-1 | 1-2 | 1-3 | 2 | 2-1 | 2-2 | 2-3 |
|--------------|-------|-------|-------|-------|-------|-------|-------|-----|
| 1. 중용 척도 | 1 | | | | | | | |
| 1-1. 조화/조절 | .89** | 1 | | | | | | |
| 1-2. 균형/안정 | .78** | .51** | 1 | | | | | |
| 1-3. 공감/포용 | .85** | .63** | .53** | 1 | | | | |
| 2. 중용적 사고 척도 | .46** | .39** | .34** | .44** | 1 | | | |
| 2-1. 다방면적 사고 | .42** | .33** | .32** | .40** | .79** | 1 | | |
| 2-2. 통합성 | .37** | .29** | .28** | .35** | .88** | .59** | 1 | |
| 2-3. 화목성 | .38** | .34** | .24** | .36** | .81** | .42** | .58** | 1 |

주. ** $p < .01$

에서는 유교의 개념 중 가장 친근하면서도 실천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중용(中庸)’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자 중용 척도를 개발하였다. 방대하고 모호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중용을 심리학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일은 추후 성격 특성이나 성격 강점, 정신 건강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 좀 더 중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개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각 연구 별로 두 개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용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였다. 연구 1의 첫 단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이론적 접근과 아래로부터 위로의 경험적 접근을 모두 사용하여 중용의 내용을 수집하고 인지, 정서 및 동기로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안도연, 이훈진, 2016) 99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일반인들이 보고한 중용의 인식 및 경험 내용들과 이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용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추가하여 함께 검토하였다. 문항은 인지, 정서 및 동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전문가들 6인에게 각 문항에 대한 평정과 의견을 요청하여 37문항으로 예비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 연구(안도연, 이훈진 2016)에 따르면, 중용의 개념과 실천 경험을 수집하였을 때 전체 내용 중 77 ~ 81%가 인지적 측면으로 분류되었기에 전체 문항에 인지적 측면을 더 많이 포함하였다.

연구 1의 두 번째 단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중용 척도가 ‘조화/조절’, ‘균형/안정’, ‘공감/포용’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요인인 ‘조화/조절’에는 주변과 자신을 살피고 적절하게 행동하는(時中) 문항들이 속하였고, 두 번째 ‘균형/

안정’ 요인에는 극단적이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不偏不倚)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상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감/포용’ 요인에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문항들이 속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용을 인지, 정서 및 동기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던 초기 분류와는 다르다. 즉, 중용은 자신이 안정되고 균형 잡혀 있는 것,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바탕에 타인 입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등 자신, 타인 그리고 사회적인 내용의 측면으로 구분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인 간 상관관이 모두 .50~.60 정도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중용의 구성 요인들은 각각 비교적 독립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결국 서로 관련되어 이 세 가지 측면이 통합적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중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수원의 연구(1997)에서 제안된 바와 유사하다. 그는 자기를 비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시중(時中)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고, 내재된 가치들의 발견을 통해 갈등 관계에서 유발되는 변화의 동력을 성장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것이 중용을 통한 갈등 해결로 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중용의 구현은 중절(中節)상태를 가리키며, 이를 통해 화(和)를 이루고, 시중(時中)의 개념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이수원, 1997). 즉, 자신 내부에서 균형과 평정을 이루고 외부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면서 조화롭게 일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중용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大濱皓, 1977; 최영진, 1994에서 재인용)⁴⁾.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한 중용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된 3요인 구조가 상대적으로 적합함을 밝혔고, 2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결과를 통해 개발된 척도가 시간의 경과에도 안정적으로 중용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중용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한 부분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56으로 나타났다. 중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상대적 측면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결과가 실제 중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의 어려움⁴⁾을 나타내는지 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변인과 관련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중용 척도 점수는 성별 및 학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과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유사하게 김민희와 민경환(2010, 2011)이 한국판 지혜 척도(KMWS)를 사용하여 연구한 바에 의하면 노년기 지혜 점수가 청년기보다 더 높았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심리적 성숙을 이를 기회가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지혜 척도의 하위 요인은 인지적 역량, 긍정적 인생태도, 절제와 균형 및 공감적 대인관계 등 4개이다. 연령 별로 비교하면 인지적 역량이나 긍정적 인생태도 요인들은 연령

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절제와 균형 및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은 청년 집단에 비해 중노년 집단의 점수가 높았다. 반대로 교육수준과는 절제와 균형 및 공감적 대인관계는 상관이 없었지만 인지적 역량과 긍정적 인생태도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김민희, 민경환 2010; 2011). 그들에 따르면, 절제와 균형 및 공감적 대인관계는 나이를 먹으면서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결국 신체적 능력 감퇴, 질병,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지적 역량이 아니라 절제와 균형을 통한 평정심과 타인에 대한 공감이다.

내용적으로 지혜의 절제와 균형 요인 및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은 중용의 균형/안정 및 공감/포용 요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중용은 일종의 한국적인 지혜일 수 있겠다. 지혜와 마찬가지로 중용이 학력 수준과는 상관이 없으나 연령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중용은 삶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적 지혜이고 변화할 수 있는 태도일 수 있다. 추후 지혜나 심리적 성숙 등과 중용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특성을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용적 태도는 연령 변인을 통제하고도 결혼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미혼보다는 결혼한 집단에서 그리고 그보다는 기타(이혼, 사별 등) 집단에서 더 높았다. 『中庸』의 12장에 따르면 ‘군자의 도(道)는 부부간의 평범한 삶에서 발달되고 그것이 지극함에 이르게 되면 결국 하늘과 땅에 짝 들어차서 빛난다’⁶⁾고 하였다. 이를 두고 김용욱(2011a;

4) 『中國古代思想論』このようにして中は時間的空間的、精神的肉体的、內的外的、主的客的、個的一般的、有的無的などあらゆる錯綜した複雑な關係のバランスを支える点、調和を支える点であった。... 中というのわ、このような深いバランス、いわばバランスの極致であった。

5) 『中庸』7장, 人皆曰子知 擇乎中庸 而不能期月守也

6) 『中庸』12장,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及其至也 察

2011b)은 일상적 삶이 지속되는 부부관계가 중용적 가치의 중요한 시험처이자,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격렬하게 지속적으로 물결치는 장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심리적으로 밀도 높은 지속적 대인관계인 결혼 생활을 통해 인간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중용적 태도를 연습하고 습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혼, 사별 등 기타에 속하는 집단이 중용 척도 점수가 제일 높았다. 즉, 중용이란 나이나 결혼 여부와 관련됨은 물론 더 나아가 다양한 경험과 숙제들을 마주하면서 축적되는 삶의 태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중용적 태도와 연령 및 결혼 상태의 관계는 반복 검증 및 종단적 연구나 다른 대인관계들과의 비교를 통해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용은 나이를 통제된 뒤에도 종교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심경섭 등(2012)이 유교 가치관 척도가 종교의 유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밝힌 결과와 일관된다. 최경숙(2012)은 개화기 지식인들은 서구 종교를 기존 가치체계인 유학의 윤리적 측면을 재확인하는 입장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종서(2000; 2013)도 한국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점을 치거나, 제사를 지내면서도 성당에 적을 두고 있듯이 한국 종교는 한국인의 생활 경험을 기반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김종서(2013)가 인용한 “일반적으로 흔히 한국인은 사회 속에 있을 때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이 되면 불교도이고, 곤경에 처했을 때는 정령숭배자(spirit-worshipper)가 된다”는 Hulbert(1906)의 글은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결국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중용 척도

점수가 높았다는 것은 한국의 종교 자체가 유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인들에게 유교는 종교를 넘어선 대인관계 규범이자 생활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심경섭 등, 2012).

중용은 인지적 유연성과 적응적 정서 조절 및 상태 뿐 아니라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을 포함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들과는 정적 상관을 이분법적 사고나 정서조절 곤란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론적으로 중용적 태도는 주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 중 적절한 것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적 유연성과(Martin & Rubin, 1994) 일상 흐름과 상황에 자신의 정서 경험과 표현을 맞추는 적응적 정서조절(Cole, Michel, & Teti, 1994) 및 스스로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는 내적 동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중용이 실제 마음의 핵심부를 잘 다스리고 가다듬어 이를 극단적이기보다는 유연하고 조화롭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박종덕, 2005)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중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에도 .40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중용 척도의 방어성이나 측정적 문제 보다 중용의 속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즉, 중용은 자신을 살피 때와 장소에 맞게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이기에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과 관련될 수 있다. 특히, 최해연과 구자숙(2009)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자기기만적 요인은 방어적 특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타인이 평가한 그 개인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고, 개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높은 자존감과 적은 심리증상 및 적은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적응적으로 긍정적

乎天地

측면으로도 여겨진다. 즉, 중용이 사회적 적응에서 긍정적 측면을 반영함을 나타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되고 타당화 된 중용 척도를 사용하여 추후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언급한 심리적 성숙 지표들과의 관계 뿐 아니라, 중용적 태도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들이나 정신건강 및 사회 적응과의 관계 등 많은 분야에서 실증적 근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로 생각되는 중용의 하위 요인들 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자기자비나 마음챙김 명상 등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불교적 수행법을 심리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심리적 건강 및 삶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단기간의 치료나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처럼, 지속하기 어려운 중용적 태도를 함양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렇듯 본 연구는 추후 관련 연구들의 바탕이 된다는 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권석만 (1997). 임상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적 연구: 정신병리에 나타난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특성. *한국심리학회 창립50주년 동계 연구세미나*, 105-132.

금장태 (2003). 중용(中庸)의 원리와 성(誠)의 실현: 다산(茶山)과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의 『중용』 해석. *인문논총*, 제 49집, 43-83.

김계수 (2007). 구조방적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김문준, 하창순 (2013). 동양철학과 심리학 융

합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상과 문화*, 제67집, 157-188.

김민희, 민경환 (2010). 지혜의 연령차와 중노년기 심리적 적응과의 상관. *한국노년학*, 30(3), 947-971.

김민희, 민경환 (2011). 한국판 지혜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231-1253.

김시천 (2016). 왜 다시 유교인가? 아시아적 가치와 현대 사회. *정치와 평론*, 18, 91-114.

김용욱 (2011a). *중용, 인간의 맛*. 서울: 통나무.

김용욱 (2011b). *중용한글역주*. 서울: 통나무.

김중서 (2000). 현대 종교다원주의와 그 한국적 독특성 연구. *종교학연구*, 19, 33-48.

김중서 (2013). 광복 이후 한국종교의 정체성. *종교와 문화*, 25, 1-25.

박종덕 (2005). 중용(中庸)의 도덕교육이론(道德教育理論): 인간 형성(人間形成)의 논리(論理). *한국도덕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49-72.

성백효 (2013). *현토완역(懸吐完譯) 대학(大學) · 중용집주(中庸集註) 개정증보판*.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심경섭, 이누미야 요시유키, 윤상연, 서신화, 장양, 한성열 (2012). 유교가치관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465-491.

안도연, 이훈진 (2016). 유학적 개념과 일상에서의 경험 조사를 통한 중용(中庸)의 심리학적 정의 도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283-300.

이기동 (2010). *대학 · 중용강설*.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명희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

- 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원 (1997). *중용의 심리학적 탐구*.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학술발표자료.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은하 (2011). 자기결정성 이론을 적용한 동기 강화 프로그램의 건강행위유지 효과: 고혈압 전단계 노인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승구, 윤희식, 김석수, 정해창, 박흥기 (2004). *중용의 덕과 합리성*. 서울: 청계.
- 장승민 (2015). 리커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사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1079-1100.
- 정보라 (2005). 사회적 바람직성의 구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궁호 (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심리학적 접근*, 서울: 지식산업사.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최경숙 (2012). *한국 개회기의 종교관*. *한중인문학연구*, 37, 297-321.
-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 (1999). *동양심리학*. 서울: 지식산업사.
- 최영진 (1994). 유교(儒敎)의 중용사상(中庸思想)에 관한 고찰(考察). *인문과학연구소(편), 동서사상의 대비적 조명*.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최혜연, 구자숙 (2004). 자기기만적 고양의 방어성 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63-79.
- 한덕웅 (2003). *한국유학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주).
- 한소영 (2010).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상담성과: 자기결정이론의 치료적 적용*.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허심양 (2011).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역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성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성훈 (2007). *정신병리에서의 이분법적 사고의 역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가휘(吳佳輝), 임이정(林以正) (2005). 中庸思維量表的編製. *本土心理學研究* 24, 247-300.
- 오하마 아키라(大濱皓) (1977). *中國古代思想論*. 東京: 勁草書房.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62), Newbury Park, CA: Sage.
- Cole, P. M., Michel, M. K., & Teti, L.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pp. 73-100).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Serial No. 240).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 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eci, E. L., & Vansteenkiste, M., (2004).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basic need

- satisfaction: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in positive psychology. *Ricerche di Psicologia*, 27, 17-34.
- Dennis, J. P., & Vander Wal, J. S. (2010). The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Instrument development and estimat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 241-253.
- Gratz, K. I., & Roemer, I.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 41-54.
- Hooper, D., Coughlan, J., & Mullen, M. (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Electronic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6(1), 53-60.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ition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artin, M. M., & Rubin, R. B. (1994). Development of a communication flexibility scale.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59, 171-178.
- Paulhus, D. L. (1988). *Assessing self-deception and impression management in self-reports: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Manual*.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Canada.
- Ryan, R. M. (2009).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wellbeing, *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Research Review 1*, 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Bath, UK.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54-67.
- Ryan, R. M., Williams, G.C., Patric, H., & Deci, E. L. (2009).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physical activity: The dynamics of motivation in development and wellness, *Hellenic Journal of Psychology*, 6, 107-124.
- Yao, X., Yang, Q., Dong, N., & Wang, L. (2010). Moderating effect of Zhong Yo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innovation behavior,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53-57.

1차원고접수 : 2017. 03. 10.

수정원고접수 : 2017. 06. 30.

최종게재결정 : 2017. 09. 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Zhongyong Questionnaire

Doyoun An

Hoon-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describe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Zhongyong Questionnaire(ZQ), a self-report instrument for measuring Zhongyong attitude. Theoretically, Zhongyong includes three aspects: (a) dialectic thinking and cognitive flexibility; (b) emotion regulation and balanced affect; (c) internal motive to consistently choose Zhongyong behavior. In study 1, thirty-seven out of 99 preliminary items were selected by six scholars studying Confucianism and Zhongyong for the face validity and the 37-item ZQ was administered to 352 college students. Data suggest that the ZQ consists of 19-item with three-factor structure. In study 2, 368 people participated to investigate the instrument's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ZQ and related scales. Results from two studies indicate that the 19-item Zhongyong Questionnaire has a three-factor structure(harmony/regulation, balance/stability, empathy/tolerance),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2-week test-retest reliability. The ZQ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other measures of cognitive flexibility, dichotomous thinking,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confirming the scale's convergent construct validity. The concurrent construct validity of the ZQ was demonstrated by its correlation with the Zhong-yong Thinking Style Scale.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ge and Zyongyong attitude. When controlling for ag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Zhongyong attitudes based on marital status and relig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Zhongyong attitude can be developed through diverse experience. In the discussion sect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Zhongyong, Zhongyong Questionnaire